

# 『공통체』를 둘러싼 의견교환\*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데이비드 하비

## 072

2009년 10월, 잡지 『아트포럼』은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의 <제목> 3부작의 3권이자 마지막 권인 『공통체』(하버드대학 출판국, 2009년)로부터, 두 개의 장대한 발췌를 게재했다. 이하에서 정치이론가 데이비드 하비는 네그리+하트의 논의의 정독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비판에 대한 저자들의 응답이 이어진다.

### 분석

데이비드 하비

안토니오 네그리의 수년 동안의 작업에는 두 개의 근간을 이루는 테마가 존재했다. 첫 번째는 노동자 계급 혹은 멀티튜드(‘빈자의 당’으로서, 그러므로 스피노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유일하게 ‘진정한 주체’로서 재정의된)의 능력에

\* アントニオ・ネグリ+ マイケル・ハート+ デヴィッド・ハーヴェイ, 『『コモンウェルス』をめぐる往還』.

<https://www.artforum.com/print/200909/david-harvey-michael-hardt-and-antonio-negri-24011>  
[일역자의 덧붙임] 『공통체』로부터의 인용을 비롯한 용어 선택은 『공통체』의 일역본을 참조하고, 맥락에 따라 일부 고쳤다. 또 하비의 용어는 주로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Urban Revolution)』(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2014)를 참조했다. 이 장을 빌려 일역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대한 변치 않는 신념이며, 이들의 노동에 내재하는 역량을 이용해 자본에 의해 주어지는 세계에 대한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그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멀티튜드는 자율적이고 비위계적으로 조직된 자기관리self-management를 거쳐 이를 행할 수 있다. 두 번째 테마는 스피노자의 철학적 작업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물론이고 세계가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는지를 조명할 수 있는 근원적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는 깊은 믿음에서 생긴다. 멀티튜드의 내재적 역량을 신-스피노자주의적 이론 무장과 결탁시킴으로써 네그리는 혁명의 이론에, 그리고 진정한 공산주의가 무엇일 수 있는지의 재정의에 기초를 부여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두 가지 테마는 『공통체』에서 힘차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협동 작업에서 마이클. 하트와 네그리는 자신들의 관념에 살을 붙이고, 우리 시대의 대안적 전지구화 - 혹은, 그들이 보다 좋아하는 말투로 말한다면 ‘다른 근대성altermodernity’ - 을 정의하고 있다. 선행하는 저작들에서 그들은 위계적인 정당들을 결성하거나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무익한 탐구라고 자신들이 간주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급진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좌파운동을 지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하는 기나긴 여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종류의 공산주의, 즉 17세기와 18세기의 철학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를 정의하려고 애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에 의해 맑스 이후의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갈라서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해도 맑스의 중요한 통찰마저 폐기하지는 않았다. 특히 1989년 이후, 현실 073 공산주의가 붕괴하거나 수정됨으로써, 다른 종류의 세계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공산주의도 가능해졌다. 그것이 무엇일 수 있을지를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네그리와 하트는 알랭 바디우와 자크 랑시에르 같은 다른 몇몇 주요 철학자들과 합류하게 되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열악한 조건들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환경악화에 의해 점점 더 강해지는 폭풍과 점점 단기간에 빈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멸의 위기까지 고려

한다면, 다른 형태의 공산주의를 끌어내려는 이 시도는 날마다 새로운 긴급성을 띠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17세기 초에 앞장서고 있던 암스테르담의 렌즈 같이(스피노자)와 더불어, 답을 구하기 위해 17세기와 18세기의 사상가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어쩐지 기묘하다. 어쨌든 네그리와 하트가 씨름하는 것의 일면적 결과는 급진적인 학생 서클에서 스피노자 연구의 유행과, 이들의 논의에 근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역시 스피노자에 호소했던 질 들뢰즈 같은 사상가들에게 점점 더 매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그리+하트가 논하는 바에 따르면, 혁명적 사상은 자본주의와 ‘소유재산의 공화제(the republic of property)’에 이의를 제기할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 사상은 “정체성 정치를 멀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과 씨름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정체성 정치는 “소유재산의 공화제의 내부에서 그리고 이에 맞서는 투쟁을 위한 주요한 수단과 매체”인데, “정체성 자체가 소유재산과 주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 단계에서 이 문제와 씨름한다. (젠더, 인종, 계급 등의) “소유재산으로서의 정체성에 기초한 종속관계를 가시화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체성을 재전유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전유물(possession) 및 소유재산으로서 수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이 나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아래에서 내가 괴로워하며 나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조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체성 정치의 두 번째 과제는 … 종속적인 정체성을 자유에 대한 회구(quest)에서 사용되는 무기로 삼음으로써”(스피노자의 핵심 개념인) “분개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반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과제는 아직 정체성을 소유재산의 한 형태로 취급하는 한에서, “항상 소유재산의 공화제에 있어서 지배적 구조의 내부에 머물러 버릴 위험을 품고 있다.” 위험은 정체성이 수단이라기보다는 목적(영속시킴으로써 기득권익을 유지하는 소유권의 한 형태)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은 [정체성의 해방(emancipation) – “당신은 실제로 누구인가”라는 질문 – 을 가능케 하지만, 자유로의 생성(liberation, 즉 “자기결정과 자기변형의 자유, 다시 말하면, 당신은 무엇이 될(생성) 변화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자유”를 방해한다. 따라서 세 번째 과제는 모든 형태

의 정체성을 폐기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다. “혁명적 정치학은 정체성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이 이 정체성의 자기폐기이다.” ‘공산주의적 명제<sup>proposition</sup>’는 예를 들면 노동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노동자로서 정의하는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급투쟁의 일차 목적은 자본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특권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분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롤레타리아의 종속상황을 폐기하는 데 있다.” 이것에 있어서 노동(작업)의 거부, 즉 저자들이 다른 대목에서 ‘탈출(엑소더스)’의 전략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주요 무기가 된다. 이것이 자유로의 생성<sup>liberation</sup>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혁명이란 [동일성의] 해방<sup>emancipation</sup>이 아니라 자유로의 생성<sup>liberation</sup>에 관한 것이다.

혁명적 페미니즘, 퀴어 이론, 그리고 인종 이론은 유사한 기획을 갖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을 현존 구조에 유폐시키는 정체성을 074 폐기하려고 한다. 혁명은 “겹쟁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괴물을 위한 것이다.” 네그리+하트는 (세익스피어의 『폭풍』에서의) 켈리번의 형상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적는다. “자신이 무엇이 될(생성 변화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을 잃어야 한다.” 정체성의 상이한 형태에 대한 투쟁들의 평행론(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스피노자의 개념인 다수다양성(multiplicity, 다양체)과 평행론(병립론)에 직접 호소한다)은, 그러나 상동적이지 않다 - 이런 투쟁들 사이의 ‘접합과 평행론’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체성의 한 형태를 둘러싼 투쟁들이 다른 형태들을 둘러싼 투쟁들을 방해할 때는 언제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어떤 한 영역이나 사회적 적대도 다른 것에 선행하지 않는다.” 혁명은 “지네처럼, 아니 실제로는 멀티튜드처럼” 전진해야 한다. “평행론과 다양체에 의해 구성된 생명정치적 투쟁의 영역에서 만”, “〈공<sup>the common</sup>〉을 위한 혁명적 투쟁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결론짓는다.

이 혁명 모델은 많은 면에서 영감을 불어넣지만, 그것에는 문제도 많다. 우선

첫째로, 네그리+하트는 슬라보예 지젝의 이견, 즉 계급에는 자본주의의 영속화와 관련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체성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이 있다는 이견을 배격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지젝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에서 인종, 젠더, 성적 정체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것들의 이름으로 행해져 온 투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들을 빼놓고 자본주의의 영속화를 예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하지만 계급의 경우, 그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소유재산의 공화제가 폐절되기 위해 모든 정체성이 폐기되어야 한다면, 고찰 대상이 되는 정체성의 범위가 너무 관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셈이다. 언제나, 예를 들면, 장소와 지역으로의 지리적인 동일화뿐만 아니라, 현지에 대한 충성심(선주민에 의해 주장된 토지와와의 특별한 관계)도 가미되어 있지 않다(다만, 단순히 부패로 치부되어 배척되고 있는 국민주의[민족주의]는 예외로 하고). 셋째, 혁명은 소유의 공화제라는 지배적인 통념과 꽤 주도면밀하게 대립되지만, 세계 65억 인구가 어떠한 위계적인 거버넌스의 형태도 없이 그리고 금융화<sup>monetization</sup>와 시장의 사정거리 바깥에 있으면서도 의식주가 충분하고 따뜻하며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극도로 의심스럽다. 이 물음은 너무도 거대해서 자율적 존재들의 수평적인 자기 조직화에 맡겨질 수가 없다. 자본주의는 그 위계적 형태를 갖고서, 불균등하지만 세계를 먹여 살리는 데에는 눈부신 진보를 이룩했기 때문에, 너무도 순조롭게 이것들의 구조를 분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급 정체성의 혁명적 변형과 평행적으로 진행되는, 일상생활의 물질적 기반에 있어서의 어떠한 혁명적 변형도 상세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논의에서 심각한 공백이다.

스피노자로의 선회는 아무리 흥미로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내가 아는 한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세계시장을 조직할 것인가 같은 세속적인<sup>mundane</sup> 사항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지구의 인구가 10억 명 이하이고, 세계 대부분이 아직 식민지화되지 않거나 상호의존성이 가득한 전지구적 시장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지리적 상황이 이러한 문제를 미해결로 두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담 스

미스와 함께 뚜렷한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칸트(『공통체』에서도, 여러 번 중요한 대목에서 특별 출연한다)가 세계시민적 해결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문제를 확고하게 유명하게 만든 것은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그토록 간결하게 내세운 전지구적 시장과 075 전지구화의 이론이었다.

스피노자의 정식이 매우 매력적인 것은 바로 그가 이러한 세속적인 사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으며, 『공통체』에는 이 점을 지지하는 증거가 많이 있다. 이런 정식들은 네그리+하트가 혁명적 기획endeavors의 물질적 토대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결국 얼마간 관념론자적인 정식화를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급히 덧붙여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도 맑스 이전의 공산주의에 대한 현재의 관심의 고조에 동시대적 적실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얼마간 유토피아적 성질을 그 사고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서는 이러한 유토피아주의 없이 살아 갈 수 없다고 믿는데 나는 주저하지 않지만, 이러한 소재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유토피아적 도식을 검토할 때도,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적 상황과 관념론적인 응답 사이의 연결 관계를 규정하는identify 것은 항상 흥미롭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16세기 초의 세계의 상태를 반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그리+하트의 책은 현대 자본주의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이자 부정적으로, 말해야 할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얼마간의 놀라운 부재도 또한 있지만.

예를 들어 현대의 자본주의는 과거의 구현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네그리+하트의 몇 년 동안의 견해였다. 물질적 생산보다 비물질적 생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비물질성은 두 가지 치장으로 나타난다. 첫째, 상품의 상징적, 미학적, 사회적 가치는 물질적인 질에 부응해 전경화된다. 둘째, 만약 맑스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사물의 생산을 통해 매개되는 것(예를 들어, 노동자에게는 임금재산, 자본가에게는 사치와 새로운 생산수단)으로서 그렸다면, 네그리+하트가 주장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대

부분이 그 대신에 “이미지, 정보, 지식, 정서, 코드, 사회적 관계맺음”을 경유한 주체성의 직접적인 생산과 더불어 유지된다는 것이다. “생산의 객체(대상)”은 이제 사물의 세계가 아니며, 이를테면 “사회관계나 삶의 형태 등에 의해” 규정된 주체의 세계다. 주체의 정치적 주체성이 생산의 객체(대상)가 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 모두가 이제 신자유주의자라면, 그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체성이 생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판뿐 아니라 계급투쟁의 영역도 그래서 단순한 사물의 생산(즉, 공장에서의 생산)에서 주체의 생산으로 이행하고 있다.

나는 이 시각이 혁신적이고 계시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맑스의 분석이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자본』 1장에서 맑스는 가치를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그 자체로는 비물질적이지만 객관적(객체적)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의 효과(power)와 의의는 그 객관적(객체적) 결과에 입각해서만 판단될 수 있다. 맑스는 이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재생산될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의 「단순재생산」이라는 장에서, 맑스는, 한편으로 자본가,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라는 계급관계의 재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실제적(physical) 재생산에 필수적인 모든 물질적·기술적인 환경들을 건너뛴다. 맑스는 그래서 상품의 생산에 관심을 가졌던 것만큼이나 정치적 주체의 생산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맑스가 누차 주장하듯, 모든 상품은 사회적 노동의 상징이며, 화폐상품은 수많은 상징적 치장을 걸치고 있다. 그래서 상품에 영겨 있는 가치가 상징적, 미학적,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이라는 사실은 결코 새롭지 않다. 비물질성이 걸치고 등장하는 첫 번째 치장에 관해서는 특별히 설득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076 치장은 더 흥미롭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네그리+하트는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이라는 맑스의 정의를 승인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기초 명제(foundational proposition)라기보다는 이미 늦어진 발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확실히 맑스주의의 전통은 가치의 비물질적이지만 객관적(객체적)인 성질을 항상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둘 필요

가 있다. 그러나 네그리+하트가 맑스의 ‘비물질적이지만 객관적(객체적)인 것’이라는 정식을 문자 그대로 취하고, ‘객관적(객체적)’ 계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맑스에게 이 객관화(객체화)는 특히 화폐형태의 생산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사물화(reification), 물신주의, 그리고 소외를 수반한다. 그러나 맑스적 이론에서의 이런 열쇠가 되는 요소는 안타깝게도 네그리+하트의 의견 제시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

비물질적이지만 객관적(객체적)인 것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맑스의 개념화 작업(conceptualization)이 그의 의제 자본의 형성(fictitious-capital formation)에 관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었다면, 나는 이 사소한 것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이는 논점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금융화의 과정에서 지극히 중대한 역할을 한다. 네그리+하트는 때때로 금융화를 언급하고, 최근에는 그 일방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의제 자본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런 이론도 가지고 있지 않고, 600조 달러에 상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파생상품(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2007년에 300억 달러를 손에 넣은 것처럼, 금융자본가들은 그로부터 거대한 개인 자산을 얻고 있다)을 순환시키고 있는 시장의 상위, 56조 달러에 상당하는 실제의 상품이나 서비스만 생산되고 있는 전지구적 경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아무런 추측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누락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주체성이 푸코적 생명권력(예를 들어 삶에 대한 국가권력)의 모든 행사에 의한 영향을 받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 자본의 증식 - 신용카드 문화에서 동산가치에서 이득을 얻는 투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 - 에 의한 심각한 영향도 받았다는 엄연한 사실이 없었다면 말이다. 비물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최근까지 맨해튼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와 미국 남서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장안의 화제는 오로지 개인의 순자산액의 마술적 증가였다. 그러나 이제 이 허구의 객관적 결과를 보라(담보로 잡힌 집들, 실업, 와해되고 있는 소비주의, 은행의 파탄 등등).

네그리+하트가 의제 자본의 범주를 무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범주가

정치적 주체성의 형성에서 유일하게 흥미로운 영역으로서, 그들이 생명권력과 생명정치(“저항하는 삶의 역량”)를 우선적이고 특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점화하는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기서의 요점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석이 너무 일면적이라서 현재의 위기와 그 저류에 있는 정치적 딜레마 - 해방된liberated 정치적 주체성을 생산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 를 이해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논리의 누락에 초점을 맞추는 비평은 물론 매우 쉽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기여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그리+하트의 사고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혁명적 가능성들을 이해하려면, 주체들과 주체성들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는 문제에 비판적으로 씩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또한 이를 고전적인 맑스주의가 능숙하게 행하지 못했다고 할 때,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옳다. 이 점에서, 네그리+하트는 푸코를 찬성하면서 인용한다. “이〈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산〉이 가치의 생산이나 부의 생산, 혹은 경제적 사용의 대상과 같이 성취된다고 **077**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를 파괴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창조하는 것, 즉 전면적인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체성의 생산에서 작동하는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인 메커니즘”으로서 푸코의 **장치dispositif**라는 개념을 구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네그리+하트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공the common〉의 집단적 생산을 현재의 힘관계에 대한 개입 - 이 개입의 목적은 지배 권력을 전복하고, 힘들에 확고한 새로운 방향을 주는 데 있다 - 으로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전략적 지식의 생산은 곧 주체성의 대안적 생산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혁명 이론이 유래하는 곳이다.

이 움직임(생각)이 중요한 까닭은 그들이 일찍부터 고찰했듯이, 근대성에 맞선 투쟁이 그런 근대성의 문제들을 복제해버리는 끔찍한 버릇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대안근대성<sup>altermodernity</sup> - 근대성과 반근대성 사이의 변증법적 대립의 바깥에 있는 것 - 을 찾아 나서며, 이들은 탈출의 수단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완전한 오류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우리는 일련의 상이한 차원들 내부에서 작동하는 전적으로 상이한 어떤 것 - 코뮌니즘<sup>communism</sup> - 을 동정<sup>同定</sup>해야 한다. 푸코는 그들에게 그 수단을 제공한다. 주체성은 생명권력의 직접적인 행사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에 관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부르주아적 질서는 정치적 주체를 직접 형성하는 데 오랫동안 필사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예를 들어 푸코의 통치성 이론과 생명권력으로의 전회에 관한 이론은 16세기 유럽으로까지 소급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맑스는 분명히 지배계급이 어떻게 지배적 관념을 생산하는가에 대해 할 말을 많이 갖고 있었다. 네그리+하트가 『공통체』의 마지막 부분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기여를 꽤 자세히 다루면서 인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지배적 관념의 생산을 둘러싼 투쟁은 오랫동안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면 비물질성과 생명권력에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가? 실제로는 무엇이 변화했는가? 일찍이 대니 해러웨이가 말했듯이, 신체는 “축적의 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자본이 신체에, 그리고 신체를 통해 작동하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측면, 즉 ‘가변자본’(예를 들어 임금)이 순환하는 방식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소비주의는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자본주의 경제에서 더욱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미국 경제활동의 약 70%가 오늘날 소비자에 의해 돌아간다. 맑스 시대에는 아마 20% 정도였던 것 같다. 가변자본의 순환은 넘쳐날 정도로 팽창했다. 그러므로 소비자 감정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자극하고 부추기고 유지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본축적에 중심적이게 됐다. 신체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으로 채워져야 한다.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세했지만, 선진자본주의 세계의 대부분에서는 이런 욕망이 점점 커져 갔고 오늘날 우리는 과잉 소비자

주의 정치학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생명권력은 그 과정을 부채질하는 수단 중 하나로서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고려되어야 할 유일한 힘<sup>force</sup>은 아니다. 의제 자본과 신용카드는 신용과 화폐시장을 경유해 정치적 주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논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정치적 주체성은 교외화<sup>sub-urbanization</sup>라는 물질적 실천들(게오르그 짐멜이 1903년에 「대도시와 정신생활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이라는 에세이에서 분석한 현상의 흥미로운 변종)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참인 것은 물건의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가 비물질적인 생산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078 그 형태는 자본 시스템이 살아남기 위해 복리로 연이율 3%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세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한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물질적인 것<sup>물건</sup>만 생산할 뿐 이라면, 우리의 집은 이것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정서, 스펙터클, 정보, 이미지, 경험적인 순간들 등등을 상품화하려는 전회에 이른다. (교실이나 교회처럼) 과거에는 주체성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작동되곤 했던 국가의 다양한 기능과 비자본주의적 제도도 대체되고 상품화되고 민영화<sup>사유화</sup>되었다. 교육, 의료, 심지어는 교도소 같이 생명권력의 행사에 가장 우선적인 영역은 자본 축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분야가 되었던 것이다.

네그리+하트는 이 변화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강조하고 있다. 그 정치경제나 물질성에는 그다지 깊이 들어가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두 가지 탐구 방법이 출현한다. 우선 저자들이 인정하듯이, 생명권력은 신체에 직접 작용한다. 그들은 이 생산형태가 사물의 생산과 근원적으로 다르며, 완전히 상이한 규칙과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푸코의 견해를 (왜 그런지를 나는 완전히 알고 있지는 않으나) 받아들인다. 정치적 주체를 생산하는 한에서, 생명권력은 네그리+하트가(푸코를 좇아) 생명정치라고 부르는 투쟁의 영역, 즉, 신체에 정위<sup>定位</sup>하는 저항과 타자성<sup>alterity</sup>의 영역도 설립한다. 그들은 주장한다, “생명정치적 생산의 궁극적 핵은 상품 생산이 종종 그렇게 이해되듯이 주체를 위한 대상의

생산이 아니라, 주체성 그 자체의 생산이다.” 이것이 그들 자신의 “윤리적·정치적 기획이 그로부터 출발해야 할” 분야이다. 그들의 배타적인(그리고 내 견해로는 너무 제한된) 초점은 “주체성의 생산의 통제나 자율을 둘러싼 투쟁”에 맞춰져 있다. 생명정치의 분야는, (거부, 엑소더스 같은) “저항과 탈주체화로서 동시에 제시되는 새로운 주체성의 창조”에 관한 것이다. 푸코의 생명권력 분석은 “단순히 권력이 주체에 대해 그리고 주체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적 주체성의 생산을 위한 잠재력을 탐색하고, 질적으로 상이한 권력 형태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혹은 푸코가 말하듯이, “권력관계의 중심에서, 그리고 권력관계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의지의 고분고분하지 않음<sup>recalcitrance</sup>과 자유의 비타협성이다.” 대안근대성은 “주체성 생산을 위한 장치”와 자유의 추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그들은 결론짓는다.

이것은 정치적 주체성의 생산에 있어서 생명권력과 생명정치가 맡는 역할에 대한 이들의 초기 이론의 설득력 있는 수정과 정교화를 구성한다. 그것은 독창적인 공헌이며, 그들이 올바르게 논하듯이, 혁명적 가능성의 생산에, 그리고 재활성화된 공산주의자 기획 - 진정한 다른 근대성 - 이 무엇일 수 있는가에 관한 재정의 속에, 이제 직접 편입<sup>incorporated</sup>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이런 근본적 통찰력을 얻을까? 여기서 나는 다소 당혹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정치에 관한 (부분적이지만) 이 중요한 논점을 투사하는 세계의 성질이 내게는 그렇게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심할 바 없이, 스피노자에 대한 나의 무지가 여기서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점에 관해 나만 준비 부족한 것은 아닐 터이다. 누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기 전에, 스피노자에 관한 깊은 지식을 요하는 정치적 책자는 매우 소규모 집단<sup>choir</sup>에게 가르침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다. 그리고 왜 나머지 사람들은 스피노자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어쨌든 『공통체』는 더 깊은 해답을 찾기 위해 스피노자 독서회 중 하나에 서둘러 참가하도록 나를 재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음을 제기할 때에도, 예기치 않은 적실성을 지닌 눈부신 섬광이 분석을 비추는 순간이 있다. 네그리+하트의 079 논의의 또 다른 특징을 두 가지 더 다루어보자 - 첫 번째는 나를 납득시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적어도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질문은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깊이 친숙해져 있는 개인이라는 개념은 불만족스럽다고 이들은 말한다. 그것은 소유재산의 공화제를 정초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초해 있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멀티튜드를 구성하는 특이성들<sup>1)</sup>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이성(그리고 나는 이를 알고 있다)은 물리학과 상대성이론에서 응용된 수학 용어다(스피노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 그것은 함수에 있어서 한 점이며, 잘 행동하지 behaved 않는 점, 무한으로 해소하는 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표상 불가능한 점을 가리킨다. 개인이든, 사람이든, 인간이든 무엇이든, 멀티튜드 내부에서 왜 특이성으로서 재개념화되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른다. 특이성들의 행태 behavior가 아무래도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사건의 영역’에 의해 주어지거나 은폐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네그리+하트는 분명히 이 용어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근거로 그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그러나 스피노자에 대한 강의를 거듭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맥락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 사람 등은 사회적 강제나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앞에 두고, 스스로의 주권적 역능을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해 버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종교 등의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것은 특이성이, 그 정의상, 결코 할 수 없는(또는 해서는 안 된다) 것이다. 특이성은 어

---

1) [일역자] ‘특이성’(singularity/singularities)은 ‘단독성’, ‘독이성(獨異性)’이라고도 번역된다. 후반부에서 네그리+하트도 기술하는 것처럼, 이 단어에 관한 해석의 차이가, 하비와 네그리+하트의 어긋남의 일부를 낳고 있다. 『공통체』의 일본어 번역본은 ‘특이성’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를 따른다.

면 생명권력에도 결코 완전하게는 종속되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도 ‘무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지금까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잠재적 능력, 그리고 아마도 이 점은 더 중요하겠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표상=대표 불가능했던 잠재적 능력을 갖추는, 모종의 ‘종적 존재로서의’ 인간인 것이다. 이 표상=대표 불가능한 특이성은 멀티튜드를 안에서부터 정초하는 요소인 것이다. 내 추측으로는, 이 개념이 중요하고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 표상=대표 불가능성 때문이다. 자신을 표상=대표 불가능하고 폭발적으로 무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용기를 줄 만하다! 그러나 이 표상=대표 불가능성은 전체의 논의를 애매하고 불명료하며 짜증날 정도로 추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표상=대표 불가능한 것에 대해, 분별 있게 대화하기는 어렵다.

이 특이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그리고 모든 - 인종적인, 계급·관련된, 젠더-기반한, 성적인, 민족적인<sup>ethnic</sup>, 종교적인, 그리고 지역적인<sup>territorial</sup> - 정체성의 기호도 실제로 벗어던지는 것이 가능하며, 스스로를 얼마나 노출시켜, 완전히 상이한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순수 존재의 양태로 향할 수 있다는 혁명적 관점에 이른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회성이 지리에 뿌리를 둔 삶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망각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의, 그리고 뿌리를 가진 지리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화된다. 문제는 우리가 ipod나 휴대전화, 그리고 사는 장소나 생활양식과 관련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쉽고, 계급·인종·젠더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정체성을 실제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리의 외부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체성들은 내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포기하는 **오코** 방식으로는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의 소비습관이 변화할 수 없다거나 우리가 장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그리+하트는 여기서 맑스의 가치이론, 즉 비물질적이고, 그래서 표상=대

표 불가능하지만, 객체적[대상적]이기도 하고, 따라서 화폐형태로는 표상=대표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돌아감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멀티튜드 내부의, 특이성으로서의 혁명적 주체성의 행태를 고찰할 때,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가령 이들은 농민봉기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이는 어떻게 특이성이 객관적이고 집단적인 정치적 존재를 드러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범례를 의도한 것일까? 그러나, 그렇다고 친다면, 이 예는 우려할 만하다. 즉 미국에서 의료개혁을 막자고 절규하는 우파들은 농민봉기로 시동을 거는 특이성의 사례인가?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새로운 생명권력의 형태를 그들의 세계에 떠넘기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그리+하트가 이 특정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출구는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가능성이 지평선상에 출현할 때, 그들은 항상 그것을 부패[분해]로 치부해 버린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농민봉기는 부패한 형태로서 아마도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랑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조작한다. 그들은 그 관념을 도입하지만 곧바로 자기애나 국가에 대한 사랑 같은 부패한 형태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낸다. 이것들의 부패는 악이라는 것조차 정의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인간학에 대해 악을 사랑과 <공>의 파생물이며, 그것들의 왜곡된 형태로 볼 것을 제기하고 싶다. 악은 사랑이 부패한 것이며, 사랑을 저해한다. 혹은 똑같은 것을 초점을 옮겨 말하면, 악은 <공>의 부패한 것이며, <공>의 생산과 생산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악은, 원초적 내지는 일시적인 존재로는 전혀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랑에 대해서 이차적인 지위에 있다. 인종주의와 내셔널리즘, 포폴리즘, 파시즘에 있어서의 사랑의 부패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 또 <공>이 자본주의의 수용=수탈이나 민영화[사영화]를 통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나 기업, 내이션(국민/민족) 속에서 <공>의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부패와 장애라는 악의 두 측면을 우선 첫 번째 기준(잣대)으로 삼아 탐구를 진행하자.

즉, 딕 체니가 말한 잘 알려진 말을 상기하면, “우리는 악과 협상하지 않는다. 악을 물리치는 것이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의 더 긍정적인 공헌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자. 즉, 투쟁의 정치적인 초점으로서의 <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많은 시각에서 야기되고 있는 정치적 주제이며, 이 책은 본질적 논의를 덧붙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 에워쌈과 <공>의 민영화(사유화)라는 주제는 오랫동안 존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것에 관한 고찰은, 없어서 버린 세계에 대한 향수 - 예를 들면, 17세기 잉글랜드에서의 디거스(Diggers)와 수평파(Levellers)의 투쟁 - 이라는 안개에 싸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현대의 이론화 작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공>의 새로운 상실에 관심을 쏟아 왔다. 물이나 기타 자연자원이 민영화(사유화)되고 점점 더 많은 자연환경이 상품화되고, 더욱이 문화적 역사, 081 자연생태의 경이, 음악에 얽힌 창의적 연구부터 유전자 소재의 특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대산업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은 영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 - 이 점에서야말로, 네그리+하트는 중요한 주장을 가지고 있다 - 도 점점 인식되고 있다. 네그리+하트의 해석으로는, 비물질적 노동으로의 전회는, 우연이지만 필연적인 과잉의 창출을 근원적으로 증가시켜 온 것이며, 그 과잉의 창출이 <공>에 다름 아니다. 이 <공>이란, 멀티튜드가 착취하는 입장에 있는 영역이며,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착취하고 있는 것이 된다. 실제로는, 자본은 <공>의 생산에 대한 제어를 잃어 왔고, 자본 자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을 생산하는 멀티튜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멀티튜드는 유례없는 권한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네그리+하트는 “정치란 계쟁적일

수밖에 없는 <공>의 활동의 영역이다”라는 랑시에르의 말에 동의한다.

<공>의 개념은, 그들의 세계의 핵심으로 이동한다. “멀티튜드의 민주주의를 상상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을 나누고, <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을 <공>의 생산과 사회적 삶의 생산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그러한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이 지배 권력을 무찌르고 그 부패[=분해]한 제도를 해체하고, <공>적인 부<sup>2</sup>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정치학의 중심은 <공>적인 부라는 이 새로운 세계의 창출이다.

여기에는 <공>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이 작동하고 있으며, 네그리+하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개념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다. 즉, “물질 세계의 <공>적인 부 - 공기나 물, 대지의 혜택 등, 모든 자연의 선물 - 이다. 고전적인 유럽의 정치적 문헌은 많은 경우 그 같은 <공>적인 부는 인류 전체의 유산이며 인류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공>이 에 워싸고, 사적 이익을 위해 수탈=수용되어 온 오랜 역사에 덧붙여, 소유재산의 공화제 내부에서 이들 <공>을 어떻게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온갖 종류의 복잡한 논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즉 1968년 개럿 하딘<sup>2</sup>)이 다시 제안한 데 이어서 벌어진 장대한 논의를 계기로 정치적 딜레마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실제로 이러한 논의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는 것에 나는 놀랐다. 나중에 보는 것처럼, 그것은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착취가 <공>의 수탈=수용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방식이 이것에 부수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출현한, 내가 수탈에 의한 축적이라고 명명한 여러 약탈적 실천(예를 들어 주택 압류)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동의하겠지만, 이

---

2) [일역자] 개럿 하딘(Garret Hardin)은 생물학자로, 1968년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으로 유명해진다. 공유지의 유한성을 모델로 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지구상의 자원의 한계를 호소했다.

것은 (맑스가 명명한) 원초적 축적이라는 이론의 계속으로 귀결되는 것이며, 훨씬 광범위하고 더 복잡한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영화되어 있던 산업부터 공익사업, 그리고 사회보장, 의료, 교육, 교통기관, 사회적·물리적 인프라, 복지(헬리버튼, Halliburton 만세)에 이르는 모든 것을 민영화[=사유화]하려는 파도가 거기에 포함된다. 그것은 또한 렌트<sup>3)</sup>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연이라는 이름의 그 광대한 <공>을, 사적인 소유 재산권의 정체 내부에 가능한 한 많이 들여오는 것을 함축한다.

네그리+하트는 다음과 같이 쓴다. “<공>의 두 번째 개념은 역동적이며, 노동의 산물과 장래의 생산의 수단의 양쪽 모두와 관계된다. 이 <공>은 인류가 공유하는 대지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창조한 언어나 인류가 확립한 사회적 관행, 인간관계를 특징짓는 사회성의 양식 등을 포함한다. 이 <공>의 082 형태는 첫 번째의 <공>처럼 희소성의 논리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과 범용화의 논리에 괴로워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논의하듯이, 그 논리란 현대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동시에 희소하다. “이 두 번째의 <공>의 형태 - 인공적인 <공>, 혹은 실제로는,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는 <공> - 의 수탈=수용이야말로 생명정치적 노동의 착취의 새로운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고, 그들은 계속한다.

이 텍스트에는 <공>에 관한 많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 - 실제로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나열할 수는 없을 정도다. 그러나 내가 결론에 언급하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대도시를 “<공>의 생산을 위한 공장”이라고 하는 네그리+하트의 견해, 그리고, 도시 공간의 형성에 의한 이익은, 렌트의 형태로 주로 실현된다(맑스 식의 이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시되고 있는 범주다)는 그들의 주장에, 나는 특히 만족감을

---

3) [일역자] 일반적으로는, 지대 또는 불로소득을 가리키며, 노동 과정에서 산출되는 이윤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 이윤과 렌트를 구분하는 것의 어려움이 어떻게 <공>의 가치의 수탈=수용의 확장이 되는지를 논하기 위해 『공통체』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된다. 자세한 것은 일역본 상권 230頁 및 317頁의 일역자 주 12를 참조.

느꼈다. 그들이 극한적으로 생명정치적인 도시의 출현을 예기할 때에, 논의를 과도하게 멀리 데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공>이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시사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대도시와 멀티튜드의 관계는 과거 공장과 산업 노동자 계급의 관계와 똑같다”고까지 이들은 시사한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후퇴하여, 이 <공>의 대부분은 경제학자가 외부 효과또는 외부효과(시장을 통해서는 비용이 매겨지지 않는 효과)라고 언급하는 것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효과는 부정적인 귀결과 긍정적인 귀결 모두를 가질 수 있다(오염이나 인구과밀은 부정적인 것의 전형이며, 사회에서의 행운의 만남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날의 활동을 통해 도시의 사회적 세계를 창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적인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에 관련되는 이 창조성은, 이미 열린 채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창의성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차단되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네그리+하트가 자본주의적 발전과 상승하는 지대를 조장하는데 있어서, 이른바 ‘크리에이티프 클래스’의 역할에 관해서, 리처드 플로리다의 이론들<sup>4)</sup>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 놀라웠다). 도시의 <공> 및 새로운 도시의 정치적 주체성을 요구하는 투쟁은, 그래서 그들의 정치학의 최전선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나는 이 움직임을 지지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나와 다른 논자들은 맑스 식 정치이론에서 공장의 노동자 계급이 특권적으로 초점화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논해왔다. 그러한 초점화는 도시 공간 형성의 생산, 공간의 생산,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혁명적 운동이 공장에 쏟아지는 불평불만에 대한 것과 동등한 관심을, 일상생활의 질에 대한 도시부의 불만 - 파리 코뮌, 시애틀의 총파업, 1969년 투쿠만의 봉기, 그리고 상하이 코뮌 등등 - 에도 쏟아 왔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했다. 주

4) [일역자]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도시사회학 전공자. 도시에 모인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창함.

요한 운동이 공장에서 일어났을 경우라도(예를 들어 1930년대 미시간주 플린트에서의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1920년대 토리노의 공장 평의회 운동), 지역 주민의 조직적 지원 - 플린트<sup>Flint</sup>에서 여성들에 의한 지원 그룹이나 토리노에서의 코뮌적인 ‘인민의 집’ - 은 정치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이지만, 항상 알려지지 않은 역할에 충실해왔다. 공장을 강조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서도 빛나갔다. 왜냐하면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명명한 것을 둘러싼 투쟁은 도시사회운동과 노동에 그 기초를 둔 정치학을 혁명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더 광범위한 기반을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슬로건이 현재 베를린에서 자그레브, 상파울루에서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모든 장소에서 ‘절규와 요구’의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083** 이러한 투쟁에 대한 언급이 『공통체』에는 일절 없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와 도시혁명에 관한 르페브르의 작업은 명시적으로는 인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도시적인 것을 현대의 투쟁의 중요한 장 중 하나로 보는 우리 좌파의 일원으로 네그리+하트를 환영하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 <공>의 생산의 중요성을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도시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들의 주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들은 말한다. “<공>의 축적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나 이미지, 정서 등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역능과 감각, 즉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역능, 서로 관계하고 사랑하는 역능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경제학적인 말을 이용하면, 이 성장에는 사회 안에서 액세스 가능한 <공>의 스톡의 증대와 <공>에 의거한 생산능력의 증대의 양쪽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누구나 열망하는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부수된다. 이 형태의 <공>은 회소성의 논리에 따르지 않으나, 타락과 에워쌈(포위)의 논리에는 종속한다. 어떻게, 혹은 왜 멀티튜드를 구성하는 특이성이, 정의상 도시라는 <공>, 즉 정서, 기호, 정보, 규범(코드)의 세계인 바를 타락, 부패, 열악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지

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현대의 표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비판 하나는 정서나 기호, 규범(코드)의 부패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적 부패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아마 특이성은 어딘가에서 이것에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명령이 아니라 온갖 실천을 통해 만들어내는, 모든 <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즉 화폐와의 불온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맑스가 보여준 것처럼, 화폐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공>의 대리를 맡는 객관적[=객체적] 특수성이다. 그것은 비물질적 교환가치를 재는 객관적[=객체적] 사용가치이며, 일단 순환과정에 들어가면 결코 그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폐는 사적 개인에 의해서 객관적[=객체적]으로 전유될 수 있는, 비물질적인 사회적 역능의 객관적[=객체적] 형태이다. 화폐는 국가에 의해 생산되지는 않지만(국가는 화폐의 생산을 관리하려고는 하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상품교환이나 신용관계로부터도 생산된다. 그래서 화폐는 항상 과잉정책으로 흐르기 일쑤고 - 세계의 중앙 은행가들이 제한없이 지폐를 인쇄하는 것을 보라 -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에는 화폐주조, 현재는 인플레이를 통한) 통화의 품질저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이성으로 이루어진 멀티튜드는 도시의 <공>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실천들에 의해 형성되는 과정에, 그리고 의제 자본이 렌트의 전유와 관련하여 기능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공>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네그리+하트의 이론화 작업과 연관된 일반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공통체』의 많은 추상화는 뛰어나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어디에서도 전개되고 있지 않다. 실제, 『공통체』에서는 무수한 제안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는 서로 충돌해 버린다. “지배권력을 무너뜨리고, 구체제를 무찌르고, 국가라는 기계를 때려부수는 것 - 심지어 자본, 가부장제, 그리고 백인우월주의를 타도하는 것 -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혁명적이고 선동적인 명령법이, 세계의 모든 정부에 대한 특정 요구 - “모든 시민에 대해 사회보장”, 기초교육, “사회적 · 기술적인 기초기능”의 훈련을 부여하는

것에 덧붙여, “모든 사람이 사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 - 와 섞여 **084** 있는 것은 약간 의외이다. 나는 그들이 왜 양쪽의 입장을 모두 취하려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실 나는 언제나 양쪽의 입장을 취하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개혁주의적 입장을 선택하는 것의 기술적·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나와 같은 혁명가에게 그러한 태도를 기대한다. 하지만 네그리+하트에게는 그걸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때려 부수려고 하는 국가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주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일까? 그들은 ‘농민 반란’에 개입하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반대하는가? 그들도 역시 양쪽에 내기를 걸으로써 손실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혁주의를 혁명의 서곡으로 간주하는 모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재차 표명한다. 그러나 네그리+하트의 너무 많은 제안들은 비물질적 추상화 작용의 영역에 간혀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결코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자들은 “오늘날의 멀티튜드의 욕망의 표현인 경제적·사회적·정치적·사회적 혁신의 역능에도 기초한” 새로운 가치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한다.

가치는 저항이 흘러 넘쳐서 한계가 없는 창조적인 것이 되었을 때, 즉 인간 활동이 문턱을 넘은 과잉이 되어 권력의 균형에 절단이 생겼을 때 창출된다. 따라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생명정치적 과정의 구성요소와 생명권력 구조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이다. 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관리가 - 국가나 자본의 집합적 조직체는 그야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 멀티튜드와 노동력, 그리고 사회적 특이성의 총체에 의한 저항을 더는 억제할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새로운 가치가 일상적 실천에서 표상되고 객체화[=객관화]되는가?”라는 것이다. 그것을 재는 유일한 방

법이 화폐라면, 이것들의 모든 고귀한 심증(환경보호주의자의 내재가치론이나 예술가의 미학가치 같은)은 화폐계산의 적용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의 지배적인 실천들에 너무나 쉽게 재흡수되고 말 것이다. 예술이 아무리 좋거나 혁명적이더라도 그것을 화폐와 교환하지 못하면 곤란한 사태에 빠지게 된다(글로벌 규모의 교환 거래는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

『공통체』에는 이런 종류의 불완전한 심증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아직 해내야 할 작업이 방대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네그리+하트의 다음 작업을 기대하고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스피노자에 대한 언급이 줄고, 맑스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관계성과 비물질성(그 대다수는 아름답고 때로는 시적으로 그려지지만)에 대해서는 더욱 지면이 줄고, 표상과 객체화[객관화], 구상화에 대한 유물론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관계성과 비물질성은 이제 충분하다! 구체적인 제안과 현행적인 정치 조직, 그리고 현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 응답

하트와 네그리

맑스주의자들은 다른 맑스주의자에게 가장 혹독한 비평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종종 반대자[opponents]의 논의를 비틀어 자신의 논점을 증명하거나 맑스적 용어[Marxology]의 비기[秘技, arcana]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용어를, 트럼프의 카드처럼 이기기 위해 내놓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주의자들의 동지인 **085** 데이비드 하비가 우리의 신간 『공통체』를 주의 깊게 읽고 칭찬해 준 데 대해 특히 감사하고 싶다. 하비는 우리와 그의 시각 사이에 몇 가지 동의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이라는 새로운 중심적인 테마와 그에 부수되는 소유재산의 비판으로,

이것은 실제로 우리 논의의 대들보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 하비는 또 우리 책의 많은 측면이 그가 해 온 중요한 작업 - 예를 들어 유토피아적 사고,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점점 증대하는 비물질적 성질, 대도시의 정치학에 대해 - 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가 지리학자로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는 영역, 예를 들면 장소의 중요성과 지구상의 공간적 차이에 관한 여러 가지 물음들에서 그는 우리의 논의를 확장하는 형태로 논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테마이다.

하비는 또 그의 프로젝트와 우리 프로젝트 사이에 있는 몇 가지 이론적·정치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이들과 그 정치적 귀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간을 들여 밝히는 것은 유익하다. 그 중 하나는 계급이 정치적 투쟁의 다른 노선들과 맺는 관계와 연루된다. 하비는 혁명적인 사고와 실천과 관련된 정체성 정치에 대한 우리의 논의 - (계급을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 형성과정의 투쟁이 과거와 미래에서 어떤 혁명적 형태를 취해 왔는지, 또는 취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대목 - 에 호의적으로 논평한 후,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계급의 우위성을 주장한다. 그는 슬라보예 지젝에게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급에는 자본주의의 영속화와 관련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체성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이 있다.” 지젝을 쫓는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급정치는 혁명적일 수 있지만 인종, 젠더, 기타 정체성을 둘러싼 투쟁은 혁명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비나 지젝의 시각의 주된 차이는, 우리는 자본이 지배를 위한 특권적인 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지배를 전복하는 것은 혁명적인 활동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우리가 이 책의 곳곳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현대의 지배를 위한 다양한 축들을 분절하는 것이며, 거기에 있어서 자본은 중요하지만 특권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비가 혁명적 분쟁의 여러 형태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러한 형태들이 “자본의 영속화”에 미치는 효과에 논의의 틀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역점의 극단적인 이행인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책의 첫 부분에서 근대성을 구성하고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식민지성과 인종주의의 형태를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티 혁명이나, 현대의 안데스에서의 선주민의 정치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급진성과 선진성을, 그러한 운동이 본주의의 영속화에 미치는 효과 사이의 연관성에 있어서만 이해하는 것 등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본주의의 지배는 확실히 이러한 위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단독으로 이것들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또 다른 근대성의 전략들은 자본주의의 지배에 대한 도전에 의해 특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런 지배의 축 속에서 선택하거나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하는 것조차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자본이 식민지성이나 인종주의, 젠더의 위계, 그리고 기타 지배를 위한 메커니즘과 함께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선이 중요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교차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지배나 착취의 축선에는, 비교적 자율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페미니즘과 블랙 래디칼리즘, 그리고 다른 인종과 정체성에 바탕을 둔 운동에 [086](#) 있어서 혁명적인 사상과 실천의 긴 역사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주류 맑스주의는 여기서 배울 것이 많다).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투쟁의 장의 중요성과 특수성이 지금은 정치적 논의의 토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계급에는 다른 정체성 영역에 비해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더 나아가 다른 투쟁형태, 예를 들어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에 기초한 것은 혁명적일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1970년대에 맑스주의자에 의해 마찬가지로 주장이 이뤄졌지만, 젠더의 위계는 계급혁명이 그 일을 완수한 후에 씨름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과 자주 일체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몇몇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것은, 가부장제는 역사적으로 자본에 선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우선과제인 동시에 계급투쟁은 페미니즘의 투쟁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아마도 하비는 계급이 오늘날 다른 정체성의 영역보다 경시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똑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 계급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계급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이들 지배의 축들 하나 하나는 독자적인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각 축선에 도전하는 투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하며 대화하는 점이 무수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권력구조 분석과 정치적 행동의 실천적 조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멀티튜드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멀티튜드는 다양한 특이성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특이성 중 어느 하나를 중심화하거나 특권화하지 않는 조직을 위한 메커니즘, 또는 장치이다. 특히 하비가 응답하고 있는 『공통체』의 혁명적인 사고와 실천에 대한 대목에서는, 자유로의 생성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다른 투쟁들 사이에 교차하는 점과 만남[마주침]을 조직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비와 우리의 두 번째 관점 차이는 바루흐 스피노자라는 인물에 집중된 것 같다. 그가 스피노자 연구의 재생을 우리의 작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로가 아니다. 현재의 스피노자에 대한 관심의 보급은 1960년대, 특히 스피노자와 맑스의 관계성에 광명을 던진 루이 알튀세르의 작업, 그리고 스피노자를 니체에 견주는 서양철학의 대안적 계보의 중요 인물로 제시한 질 들뢰즈의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비가 지극히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스피노자가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맑스나 다른 누군가가 그 답을 갖고 있다고 믿을 어떤 이유도 없다. 만일 우리의 논의가 스피노자의 깊은 이해에 의거한다면, 스피노자 연구 그룹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좁은 독자층한테만 이해될 뿐이라고 하비는 덧붙인다(사실 우리는 하비의 응답에 흥미를 얻어 우리 책의 색인을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은 스피노자의 향은 확실히 꽤 많고, 미셸 푸코의 향과 거의 비슷했지만, 맑스의 향만큼은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자신이 잘 모르는 철학자에 대한 언급에 답답함을 느끼는 독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배우고 싶어 할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비의 논평이 일깨

위준 진정한 요점은 스피노자의 논의의 명료함과 유용성이다.

스피노자 사상의 한 가지 결정적 국면으로서, 하비가 강조하는 것은 특이성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특이성의 개념은 스피노자에 국한되지 않고, 서양철학의 역사를 거쳐 적어도 둔스 스키투스까지 087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개념은 푸코, 들뢰즈, 알랭 바디우, 조르조 아감벤을 포함한 현대사상의 주요 인물들의 상당수에게 중심이 되는 것이었고, 그들은 각각, 거기에 약간 다르게 정의를 가하고 있다. 하비는 바디우의 사고에 대략적으로 부합하는 형태이며, 수학적 특이성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것과는 의도가 다르다. 우리는 오히려 특이성의 개념을 한편으로는 개체의 형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의 형태와 대비시키면서 그 다수다양성과의 관계 중 세 가지 요소를 초점화함으로써 정의하고 있다. 우선 특이성이란, 외적으로는, 다른 것의 다수다양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분할되어 있거나 다종다양하기도 한다. 나아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다수다양성 - 즉, 생성 변화의 과정 - 을 구성한다(예를 들어 『공통체』 pp.338-339를 보라). 스피노자에 있어서,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계몽사상의 중요한 동향에 있어서 인간을 특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영혼 등 어떠한 형이상학적 토대로부터도 제거하고, 그 대신 역사적으로 정의된 다수다양성으로서, 즉 욕망과 이성 양쪽의 논리에 따라 열정[수념]과 언어의 운동에 의해 구성된 다수다양성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맑스주의적 역사유물론의 전통에서는 종교적 내지 초월적 이론에 의해 정의되는 실체적 개인이란 생각은 주체성 생산의 신비화 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개인을 기반[*foundation*]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은 정치이론가 C. B. 맥퍼슨<sup>5)</sup>이 밝혔듯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전유물과 소유 재산의 기반으로, 또 시장의 이데올로기의 중심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비판은 집합적이고 균질적인 계급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내포하지

5) [일역자] C. B. 맥퍼슨(Crawford Brough Macpherson)은 캐나다의 정치이론가. 해럴드 러스킨한테서 사사했다. 신자유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에 대한 초창기 비판자 중 한 명으로, 자본주의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접합을 도모하였다.

않는다. 특이성의 개념은 오히려 혁명적 주체의 구성을, 서로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다수다양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특이성의 개념을, 다수다양성에 대한 관련 개념과 아울러 생각해 보는 노력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각된다. 비록 그것이 스피노자나 다른 철학자에게 씌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심의 중심을 이루는, 분석적·실천적 정치의 물음들 중 몇 가지를 제기하는 열쇠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리도 없지만, 하비는 우리의 논의가 맑스의 그것에 가까울 때는 훨씬 스스럼없지만, 우리가 맑스를 숙독하지 않은 것처럼 그의 눈에 비칠 때, 혹은 실제로 우리가 맑스주의 전통의 표준적 해석에서 벗어날 때는 난감해한다. 일례를 들어보면, 맑스의 의제 자본이라는 개념을, 현대 경제에 있어서 금융의 중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원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시각에서 금융자본은 시장과 관련된 제한 내부에서만, 그리고 특히 자본가들끼리의 경쟁에서 의제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에 선 많은 논자가 현재의 위기는 그 대부분이 금융과 실제적 경제 생산의 괴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견해에는, 금권 정치나 금융에 기생하는 행위자<sub>agent</sub>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풍의 수사가 자주 부수된다. 그러나 개개의 자본가들이 아니라 집합적 자본에 주목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조감도를 보게 된다. 즉 금융화는 잉여가치 및 집합적 저축의 성장률의, 비생산적이고/이거나 기생적인 일탈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축적의 중심형태인 것이다. 또한 산업의 틀 속에서는 경제 생산과 금융의 관계는 현실 대 허구의 관계로 여겨져 왔겠지만, 오늘날 중심적인 것으로 대두하고 있는 경제 형태는 이 관계에 새로운 빛을 쬐다. 실제로 금융 형태는 오늘날 점점 더 사회적·생명정치적인 가치 생산의 새로운 과정과 대칭적이다. 예를 들면 지식이나 규범, 언어, 이미지, 서비스, 정서, 사회관계 같은, 우리가 이 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적 상품의 생산은 중요한 비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비물질적 상품도 금융도 허구라는 것은 아니다. 이 분석은 금융에 관한 다른 정치적 [088](#) 입장,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해, 동시에 더 일반적

으로는 경제를 변형시킬 전망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로 우리를 이끈다. 즉, 금융을 허구로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현재의 것을 점유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재전유함으로써 <공>적 상품의 소유재산을 변형시키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한다.

정치조직에 관해서도 하비는 때때로 우리가 맑스 주장의 전통에서 일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 우리는 오히려 맑스의 사고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하비는 ‘농민반란’이나 다른 다양한 반란 형태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제도의 논의를 방해하는 최근의 우파를 내세워 이런 정치적 열정과 분노의 폭발이 반드시 진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우리는 분명히, 반란이 정치적으로 볼 때 진보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과 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란하는 장에서 사고를 개시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열정에서 출발하고, 그로부터 정치적인 기획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1843년에 맑스가 아놀드 루게한테 보낸 유명한 편지가 상기된다. 이 편지에서 그는 현재 존재하는 투쟁을 비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맑스가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와도 분유하는 정치적 리얼리즘의 원칙이다. 정치사상의 첫 번째 규칙은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화된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리얼리즘의 자세는 모든 전위정치에 대한 관념이나 ‘진리의 이데올로기’를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노력에는 하비도 동의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한다. 혁명적인 행동은 아래로부터만 형성되며, 그 장단점은 그 행동이 표현하는 구성적 권력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적 권력이란, 온갖 투쟁의 내적 역학, 투쟁의 특수한 조직 양태, 그리고, 투쟁이 나타내는 프로그램과 지도의 형태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도 또한, 멀티튜드의 개념 - 혹은, 실제로는 멀티튜드를 만드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구성적 권력이 표현된다 - 이 우리들의 논의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개혁과 혁명 사이에 해묵은 정치적 논쟁 - 이를테면, 에두워드 번스타인이 20세기 초반의 제1인터내셔널로 거슬러 올라가는 논쟁 - 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해, 하비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한다. 우리는 개혁과 혁명의 관계에 대해, 개혁은 혁명의 서곡이라고 설명할 때의 하비와 완전히 똑같은 이는 파악되지 않지만, 오히려 양자의 분단이, 얼마나 빈번하게 용해되는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유일하게 곧은 길은 존재하지 않지만 꼬불꼬불한 가시밭길은 많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하비가 논고의 첫머리에서 시사했듯이, 예를 들어 국가권력을 갖는 것에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다. 그래서 이 책이나 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열렬한 관심을 품고, 볼리비아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서 좌파정권의 최근 경험을 쫓아온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국가에서 단독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오늘날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국가와 국가주권의 위기는 현대의 통치이론의 위기와도 합치한다. 이 상황은 글로벌한 시스템을 조작하는 수단으로서, 미국이 취한 일방행동주의의 시도의 지극에 와서는 명백한 실패(그것은 어떠한 단일한 국민국가도 일방행동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에 의해, 또 더 일반적으로는, 모든 ‘왕권적인’ 지배기술의 쇠락 - 그것은,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과거에 국내외의 [089](#) 정치를 좌지우지한 - 에 의해 묘사된다. 이 경위는 어느 정도는, 대두하는 지배형태의, 복수의, 자주 탈중심화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체로부터 통치지배로의 이행으로서 특징지어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 책의 말미에서 상당한 논의를, 이러한 글로벌한 통치지배의 형태에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때로는 더 엄격하고, 한층 폭력적인 위계와, 그 지배가 전개되는 관리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두하고 있는 통치지배의 개념과 구조가 마찬가지로의 글로벌한 권력구조를 흔들고 전복시킬 수단을 가져온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몇 가지 점에서 도래할 혁명적 조직을 위한 조건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비는 우리의 책이 “구체적인 제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의 것 같은 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마도,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현행적인 정치조직’이나 ‘현실의 행동’에 전혀 흥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정치적 경력은 그러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대신 우리의 것 같은 책이 현재를 이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발명하기 위해 독자를 도발하고 고무시키는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책의 성공 내지 실패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